
공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2011. 4.

I. 머리말	1
II. 공공기관 해외직접투자 추이.....	2
III. 주요 특징	4
IV. 결론 및 시사점	10

일 러 두 기

- 본 보고서에서 이용되는 통계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작성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통계를 활용하였음.
- 투자금액은 송금(실행) 기준이며, 해외사무소를 제외한 현지법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함.
 - *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통계는 통상 지점, 지사를 제외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금액면에서도 현지법인 투자금액의 1.5% 수준으로 미미
- 사후 신고 및 변경 등이 발생하므로 이전 발표 자료와 다를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통계가 우선함.
- 투자 국가나 지역의 경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경유하여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음.

I. 머리말

□ 최근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의 해외 직접투자 동향 및 주요 특징 등에 관해 분석코자 함.

-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286개 기관을 분석 대상으로 함.¹⁾
- 한편, 동 법률 상 공공기관은 직원수, 자산규모,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의 비중 등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형별로 아래와 같음.

【 공공기관 유형 분류】

유형	기준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10년 6월 수출입은행이 발표한 기준 자료와 비교하여 분석 대상 기간을 전체로 확대하였고, 연기금²⁾의 투자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 연기금은 금융기관이 자산운영을 수탁하는 형태가 있어, 실제 투자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기금 계정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과 별도 분석하였음.

1) '10년 지정 공공기관은 284개이나, 기간간 비교 가능성을 위해 '10년에 지정 제외된 2개 기관을 포함

2)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우정사업본부, 한국교직원공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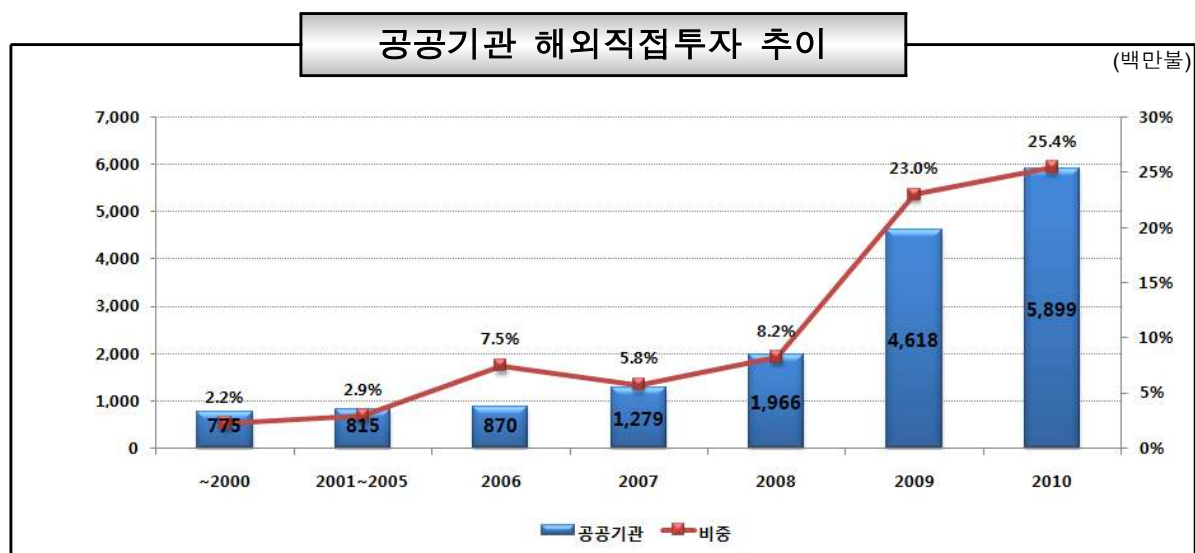
II. 공공기관 해외직접투자 추이

1. 개요

□ 공공기관 해외직접투자는 누적 기준으로 162.2억 달러를 기록하여 우리나라 전체 투자금액 1,633.7억 달러의 9.9%를 차지

◦ '10년에는 전년대비 27.8% 증가한 59.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02년부터 9년 연속 증가세

* 2010년 주요 사업 : 석유공사의 영국 다나社 인수,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비스트社 인수, 한전의 바얀 리소스社 인수, 한전의 호주 유연탄 투자, 가스공사의 캐나다 천연가스 투자



□ 민간 기업의 해외투자 대비하여 공공기관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연간 해외투자금액의 25.4%까지 투자 비중이 상승

◦ 공공기관의 '10년 투자금액은 '06년 대비 6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동기간 중 전체 투자금액이 2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매우 큼.

◦ 특히, 1억불 이상 투자가 7건, 51.4억 달러로 전체 대형 투자 중 금액 기준 40.0%, 건수 기준 21.2%를 차지하며 투자 규모 대형화를 견인

2. 기관 유형별 추이

□ 해외직접투자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은 총 286개 중 10.0%에 해당하는 29개 기관에 불과

◦ 상위 1개 기관의 투자금액이 전체 투자금액의 69.2%를, 5개 기관(자회사 포함시)이 98.9%를 차지하는 등 소수 공공기관이 투자를 주도

* 해외직접투자 주요 공공기관 : 석유공사, 전력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산업은행, 한국수력원자력, 중부발전, 수출입은행, 남동발전, 자산관리공사

□ 기관 유형별로는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 등이 속한 공기업이 96.5%(시장형 공기업 90.0%, 준시장형 공기업 6.5%)를 차지

◦ 이어 중부발전 등 발전 자회사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이 속한 기타 공공기관이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 기관³⁾은 각각 0.2%에 그침.

<기관 유형별 투자 동향>

(백만불)

구 분	~'00	'01~'05	'06	'07	'08	'09	'10	누계
시장형 공기업	579.5	571.8	824.3	984.4	1,754.8	4,337.2	5,551.2	14,603.3
준시장형 공기업	6.4	34.8	45.9	195.0	210.4	279.6	281.4	1,053.5
기타 공공기관	167.1	192.4	0.1	81.5	0.6	0.6	61.9	504.1
기금관리형 기관	-	16.0	-	17.9	-	-	-	33.9
위탁집행형 기관	22.0	0.0	-	0.3	0.5	0.4	4.8	28.1

III. 주요 특징

1. 업종별 특징

□ 공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업종은 광업 등 일부 업종에 제한

◦ 민간 부문을 보조하는 공공기관 업무 성격 상 제조업, 도소매업 등 일반적인 업종에 대한 해외진출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 것으로 보임.

3) 국민연금공단 등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별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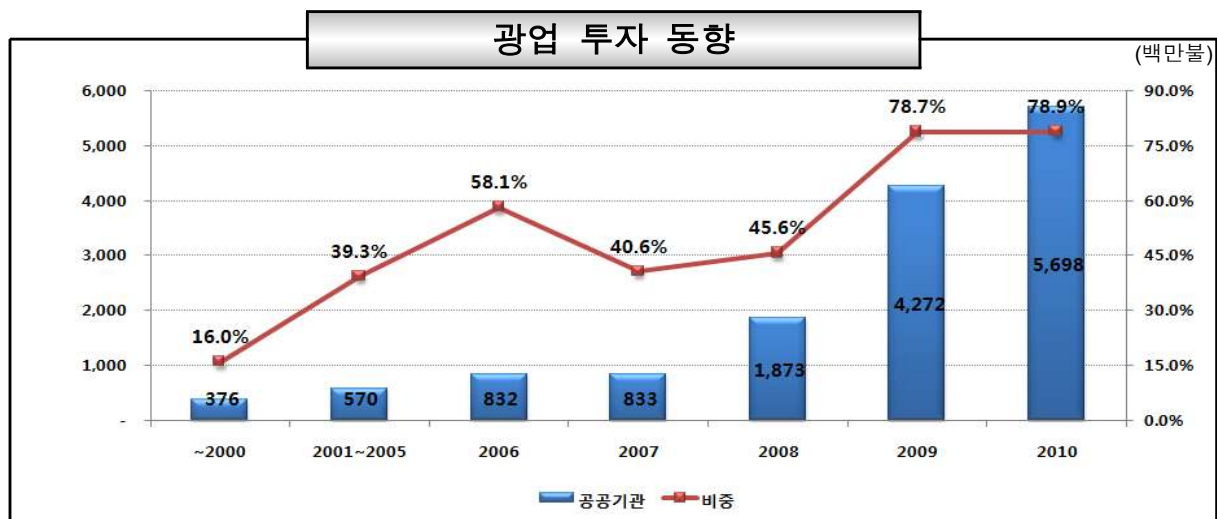
<업종별 투자 동향>

(백만불)

구 분	~'00	'01~'05	'06	'07	'08	'09	'10	누계
광업	376.3	570.1	832.0	832.5	1,872.9	4,271.8	5,698.1	14,453.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85.6	12.7	24.9	346.9	58.3	319.9	117.7	966.0
금융및보험업	167.1	208.4	-	95.6	-	-	60.0	531.0
제조업	101.0	23.9	13.4	-	-	4.5	7.2	149.9
건설업	-	-	-	3.8	34.6	14.4	0.1	52.9
기타	45.0	-	-	0.3	0.5	7.2	16.3	69.4

□ 최대 투자업종은 광업⁴⁾으로 누적 기준 투자비중 89.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0년에는 96.9%에 해당하는 57.0억 달러 기록

◦ 이는 해외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전문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 이어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⁵⁾에 대한 투자가 크고, 동 업종 공공기관 투자비중도 광업과 마찬가지로 해당 업종 전체 투자금액의 60% 이상을 차지

◦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투자 비중이 낮아졌으며, 규모 면에서도 크지 않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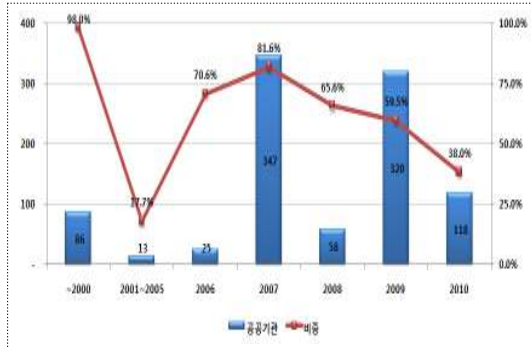
4)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으로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금속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광업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

5) 전력의 발전 및 송·배전사업, 연료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사업, 증기, 온수, 냉수, 냉방공기의 생산·공급사업, 상수도 및 산업용수의 집수·정수 및 공급사업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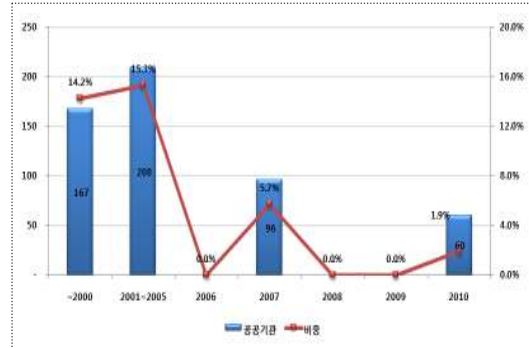
주요 투자업종의 투자 동향

(백만불)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산업>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건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도 실제로는 석유 정제설비 제조, 발전소 건설, 발전기 제조 등 광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업종과 연관

<우리나라 업종별 투자현황과의 비교>

(백만불)

지역	공공기관(A)			우리나라 전체(B)			비중 (A/B)
		비중	순위		비중	순위	
광업	14,454	89.1%	1	24,045	14.7%	2	60%
전기,가스,증기및 수도사업	966	6.0%	2	1,556	1.0%	11	62%
금융및보험업	531	3.3%	3	11,982	7.3%	4	4%
제조업	150	0.9%	4	64,305	39.4%	1	0%
건설업	53	0.3%	5	3,993	2.4%	8	1%

주 : 누적 기준

2. 지역별 특징

-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누계 기준으로 북미가 32.9%로 가장 높고, 이어 유럽 28.8%, 아시아 18.8% 순
- '10년에는 석유공사의 영국 다나사 인수 영향으로 유럽 투자가 전년대비 265.4% 증가하였으며, 전년도에 급증하였던 북미는 61.9% 감소

<지역별 투자 현황>

(백만불)

구 분	~'00	'01~'05	'06	'07	'08	'09	'10	누계
북미	38.8	6.9	280.5	55.7	1,003.4	2,866.5	1,092.4	5,344.2
유럽	190.8	107.0	38.1	91.2	155.5	880.1	3,215.8	4,678.5
아시아	331.8	399.9	205.2	635.7	346.9	338.5	785.6	3,043.6
아프리카	14.1	137.5	183.5	185.6	131.4	238.3	201.6	1,091.9
중남미	116.3	118.7	69.4	140.0	137.6	55.5	129.6	767.1
대양주	24.3	18.4	8.1	77.2	129.7	147.5	310.2	715.5
중동	58.9	26.5	85.5	93.7	61.8	91.3	164.2	582.0

□ 우리나라 전체 현황과 비교하면, 광업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투자가 증가한 북미와 유럽의 투자 비중이 높고, 제조업 투자 비중이 높은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북미지역은 지정학적 안정성, 시장 투명성 등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아 전세계적으로 자원 개발투자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음.

<우리나라 지역별 투자현황과의 비교>

(백만불)

지 역	공공기관(A)		우리나라 전체(B)		비중 (A/B)
		비중		비중	
북미	5,344	32.9%	37,901	23.2%	14.1%
유럽	4,679	28.8%	29,658	18.2%	15.8%
아시아	3,044	18.8%	73,802	45.2%	4.1%
아프리카	1,092	6.7%	2,382	1.5%	45.8%
중남미	767	4.7%	12,717	7.8%	6.0%
대양주	715	4.4%	4,135	2.5%	17.3%
중동	582	3.6%	2,775	1.7%	21.0%
총합계	16,223	100%	163,370	100%	9.9%

주 : 누적 기준

□ 국가별로는 총 48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상위 5개 투자국은 캐나다, 영국, 미국, 베트남, 네덜란드 순⁶⁾

- 중국 앞 투자 비중은 낮은 반면, 해외자원개발 투자지역인 마다가스카르, 페루, 예멘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

6) 공공기관이 투자한 북미, 유럽 소재 기업은 다른 지역에 유전이나 광구 등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원개발 전문 기업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투자 국가의 양상은 다름.

<우리나라 국가별 투자현황과의 비교>

(백만불)

국가	공공기관(A)			우리나라 전체(B)		
		비중	순위		비중	순위
캐나다	3,801	23.4%	1	5,139	3.1%	7
영국	3,166	19.5%	2	7,591	4.6%	4
미국	1,543	9.5%	3	32,761	20.1%	1
베트남	947	5.8%	4	6,344	3.9%	5
네덜란드	942	5.8%	5	5,502	3.4%	6
인도네시아	710	4.4%	6	4,568	2.8%	8
홍콩	703	4.3%	7	11,130	6.8%	3
마다가스카르	621	3.8%	8	727	0.4%	33
오스트레일리아	577	3.6%	9	2,573	1.6%	16
페루	369	2.3%	10	774	0.5%	32

주 : 누적 기준

3. 기타 특징

□ 투자 형태별로는 단독 투자 비중 증가, 투자 방법은 증권투자 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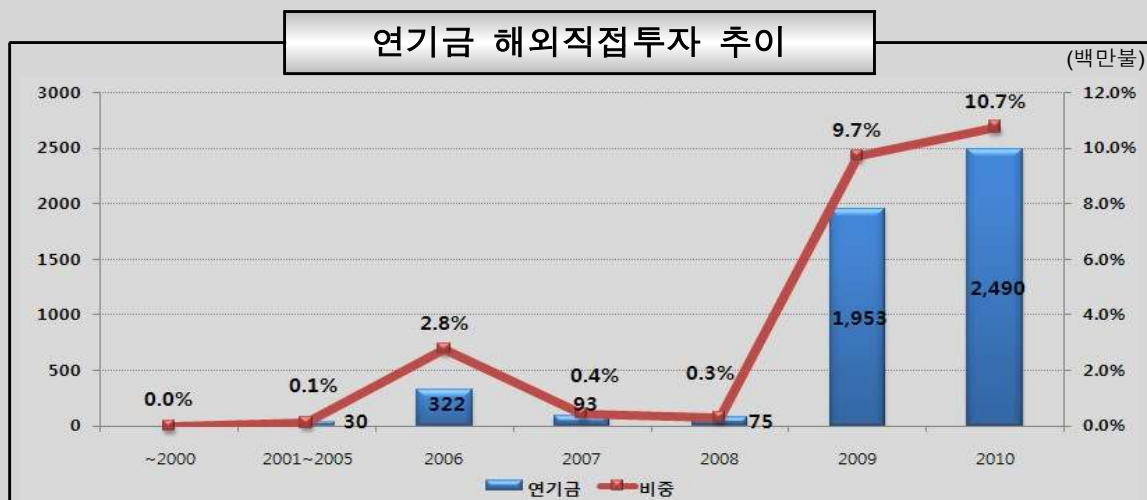
- 자체 해외사업경험 축적,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M&A와 생산광구 투자 증가, 민간 투자 위축 등으로 과거에 비해 단독투자 비중이 증가
- 한편, 투자방법별로는 증권투자 위주이며(증권투자 84.5%, 대부투자⁷⁾ 15.5%), 우리나라 전체 투자와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음.

7) 투자자가 현지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형태의 투자

※ 주요 연기금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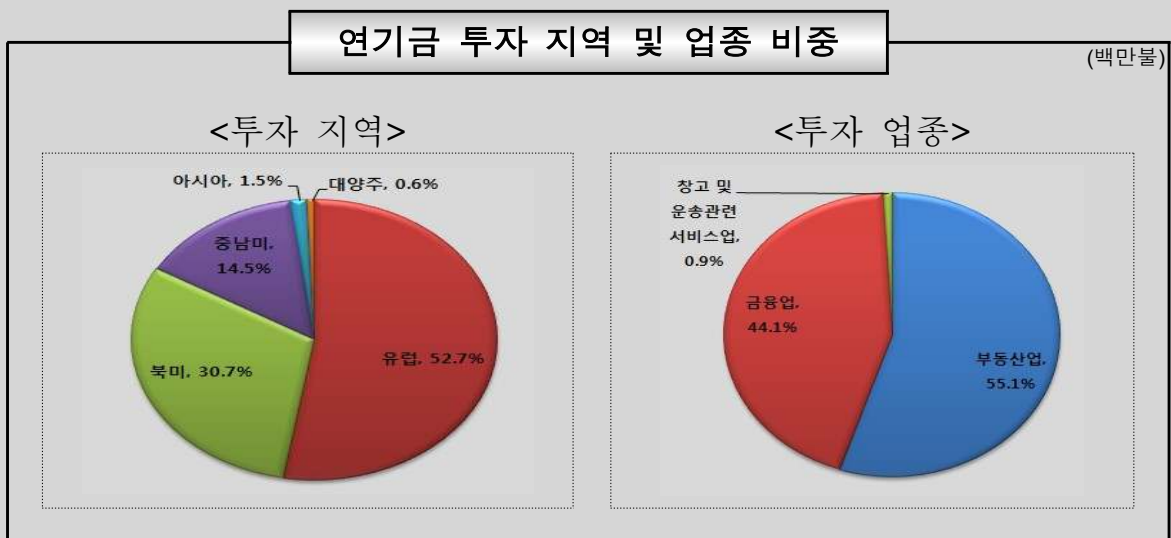
□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도 최근 해외부동산 취득, 금융 및 보험업 투자 등을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활발하게 진행

- '08년 이전까지의 해외직접투자금액은 미미하였으나, '09년 19.5억 달러에 이어 2010년에는 24.7억 달러를 투자하여 각 연도의 전체 투자 금액 대비 10% 수준에 이름.



□ 연기금의 투자 지역은 선진국에 집중

- 투자 지역은 북미(30.7%), 유럽(52.7%) 등 선진국에, 투자 업종은 부동산 산업 및 임대업(55.1%), 금융 및 보험업(44.1%)에 집중되어 있음.



IV. 결론 및 시사점

- 공공기관은 민간 부문을 보완하는 업무 성격상 해외진출이 활발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투자규모가 크게 확대
 - 공공기관의 해외직접투자금액은 '09년 46.2억 달러, '10년 59.0억 달러로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중이 각각 23.0%, 25.4% 수준까지 증가
 - * 연기금을 포함할 경우 투자 비중은 '09년 37.2%, '10년 36.2%
 - 민간 부문 투자는 금융 위기 직후인 '09년 38.0% 감소하였고, '10년에는 9.4% 증가한 데 그쳐, 역대 최고치였던 218.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부문별 투자 동향>

(백만불)

구 분	~'00	'01~'05	'06	'07	'08	'09	'10	누계
민간 부문	33,940.1	26,845.2	10,427.4	20,847.7	21,804.1	13,522.5	14,796.4	142,183.3
공공 부문	775.1	845.0	1,192.5	1,372.3	2,041.0	6,571.3	8,389.6	21,186.9
공공기관	775.1	815.0	870.3	1,279.1	1,966.3	4,617.8	5,899.3	16,222.9
연기금		30.0	322.3	93.2	74.7	1,953.5	2,490.3	4,964.0

- 이러한 공공 부문의 투자 증가에 힘입어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세계 평균대비 회복 속도가 빠른 편
 - UNCTAD(유입액 기준)에 따르면 전세계 2010년 해외직접투자는 1조 1,220십억 달러로 전년대비 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7년 최고치 대비 절반 수준
-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해외직접투자는 광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각국 국영석유기업(NOC)의 해외 자원개발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
 - 정부가 자주개발률 제고(원유·가스 자주개발률 '09년 9% → '19년 목표 30%)를 위해 자원개발 공기업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10년에도 광업 투자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의 해외직접투자는 활기를 띠 전망

<2011년 자원개발 투자전망>

(억불)

구분	공기업	민간기업	계
석유·가스	66	13	79
광물	26	44	70
계	92	57	149

자료 : 지식경제부

- 한편, 주요 연기금은 해외 투자 자산을 확대한다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어 연기금 해외직접투자도 점증할 것으로 예상
 - 국민연금은 기금 적립금('10년말 325조원) 중 해외자산 비중을 현재 13%에서 '15년 20%('15년말 예상 적립금 약 50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부동산 이외에 사회간접자본, 자원개발 등 투자도 검토 중에 있음.
- 공공기관의 해외직접투자는 공공기관 자체의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 경험의 축적을 통해 민간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정부 주도 하에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며,
 - 최근의 투자 확대는 소수 기관의 광업 투자에 집중되어 있는 바, 공공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관이 다양한 형태의 해외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 지원과 민관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한 체계적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동시에 투자금의 안정적 회수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음.

책임조사역 김유신 (☎02-3779-6667)
E-mail: echis@koreaexim.go.kr

(참고자료)

공공기관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가명	~'05	'06	'07	'08	'09	'10
캐나다	15.3	276.7	15.9	32.1	2,369.5	1,091.8
영국	169.6	0.0	0.0	0.0	0.0	2,996.5
미국	30.4	3.8	39.8	971.4	497.0	0.6
베트남	196.2	141.8	199.4	187.1	114.6	107.8
네덜란드	1.7	21.2	25.0	49.6	627.1	217.7
인도네시아	121.3	7.4	0.0	0.1	57.8	523.3
홍콩	234.6	32.8	389.9	10.9	8.1	26.6
마다가스카르	0.0	26.9	134.4	86.1	208.2	165.8
오스트레일리아	42.7	8.1	63.5	102.8	70.5	289.1
페루	107.0	46.7	58.5	76.1	36.7	43.8
예멘	85.5	85.2	93.3	37.6	0.0	13.9
리비아	124.4	36.3	30.8	35.5	23.9	13.3
프랑스	0.0	0.0	0.0	0.0	243.2	0.0
말레이시아	35.5	13.9	25.8	73.3	36.7	52.4
사이프러스	0.0	17.0	66.2	105.9	5.3	1.0
버뮤다	75.2	19.3	55.2	21.9	0.0	6.6
이라크	0.0	0.0	0.0	22.8	61.7	89.5
필리핀	90.9	0.0	1.4	16.5	33.7	19.8
나이지리아	0.0	113.9	20.5	9.7	6.2	6.3
마셜군도	0.0	0.0	13.7	26.9	77.1	21.1
싱가포르	3.7	0.0	14.6	28.7	54.5	16.0
바레인	0.0	0.0	0.0	0.7	29.3	60.8
브라질	30.0	0.0	0.0	0.0	0.0	60.0
헝가리	89.2	0.0	0.0	0.0	0.0	0.0
중국	29.2	8.1	4.2	30.2	4.5	2.9
멕시코	0.0	0.0	0.0	39.6	2.4	0.7
아일랜드	36.0	0.0	0.0	0.0	0.0	0.0
영국령 버진군도	16.0	0.0	0.0	0.0	14.8	0.0
카자흐스탄	0.0	0.0	0.0	0.0	25.5	2.1
베냉	20.9	6.5	0.0	0.0	0.0	0.0
미얀마	0.0	0.0	0.0	0.0	3.1	23.5
케이만군도	0.0	0.0	25.7	0.0	0.0	0.0
남아프리카공화국	0.0	0.0	0.0	0.0	0.0	16.2
칠레	0.0	0.0	0.0	0.0	0.0	16.0
우즈베키스탄	7.2	1.1	0.4	0.1	0.0	7.2
일본	13.1	0.0	0.0	0.0	0.0	0.0
아르헨티나	6.8	3.4	0.6	0.0	0.0	0.0
이집트	6.3	0.0	0.0	0.0	0.0	0.0
러시아	0.0	0.0	0.0	0.0	4.5	0.6
볼리비아	0.0	0.0	0.0	0.0	1.7	2.6
몽골	0.0	0.0	0.0	0.0	0.0	2.4
인도	0.0	0.0	0.0	0.0	0.0	1.6
터키	1.4	0.0	0.0	0.0	0.0	0.0
아랍에미리트	0.0	0.0	0.4	0.7	0.0	0.0
요르단	0.0	0.0	0.0	0.0	0.3	0.0
레바논	0.0	0.3	0.0	0.0	0.0	0.0
사우디아라비아	0.0	0.0	0.0	0.0	0.1	0.0
룩셈부르크	0.0	0.0	0.0	0.0	0.0	0.0